

2025 유성On마을별
대전 송강중학교 아트로그북

열네 살의 온도



목차

Editor's note ____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들
들어가며 ____ 많이 달라진 나

1부 ____ 내 마음은 몇 도일까?

첫 만남

열네 살의 한 장면

내 별명은 서프!

그림 그리면서 드는 생각

시간을 붙잡는 마법, 사진

나의 최애, 고양이

가장 행복했던 2024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 수영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 송강초등학교

2부 ____ 친구야, 네 마음은 몇 도야?

초단편 소설 : 긴 머리 이상한 녀석

이태경 시집 : 어찌면 내가 가장 반짝일 때

평범한 건 싫어서

내 꿈은...

여름 / <남남>을 읽고

추억에 대한 느낌 / <스파클>을 읽고

현실인 듯 현실이 아닌 / <네가 되어줄게>를 읽고

판타지 소설의 매력 / <현실 온라인 게임>을 읽고

작은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 / <아무튼 문구>를 읽고

이야기를 닫으면서 ____ 이렇게 우리가 된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들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반석동에서 송강동까지, 월요일 아침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학기 초반 이동하는 길이 낯설어 네비게이션 안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지도를 보면서 운전은 했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일쑤였습니다.

책 마감과 동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도 송강중학교까지 어렵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온전히 나의 기억을 믿고,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송강중학교로 출근하던 기분을 되살리며, 차 안에서 오늘의 수업 일정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지난 수업 참여도와 반응을 되짚어보며 강사의 마음가짐을 되뇌었던 10여 번의 월요일 아침 시간이 내 몸에 온전히 스며든 것이지요.

기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주 작은 흔적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적잖은 힘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에요. 일상에서 마주한 아주 사소한 것도 알알이 소중한 구슬 다루듯 꾸준히 돌보고 가꾸어 꺾어놓으면 반짝이는 나만의 공예품이 되지요. 작은 경험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 잘 하고 싶은 열의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매주 학생들이 편편이 기록한 작업물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개구진 농담을 주고 받다가도 집중해야 할 순간에는 나만의 작업물에 몰입하는 열네 살의 가능성과 그 뜨거운 온도를 감각했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을 만나며 아이들이 이렇게 깊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외부 직업인들과의 만남은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자 세상을 들여다 보는 창문이었어요. 교과서로 배울 수 없는 삶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배운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 제도와 유성온마을별 사업은 집과 학교, 학원 외에 틈을 낼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무척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송강중학교 친구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 작은 책 한 권이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글과 사진, 그림 그 이상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라 믿어요. 기록과 꾸준함의 힘을 잊지 말자고요. 모두 고맙습니다.

들어가며 _____

많이 달라진 나

(정예지)

학기 초, 나는 사실 자존감이 낮았다. 중학교 생활을 반아드리긴 했으나,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내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 같다.

예은작가님과 처음 했던 수업 때 답했던 질문지를 보면 답들이 대부분 다 1,2줄인데 ‘가족들에게 들었던 가장 서운한 말은?’ 이라는 질문의 답만 3줄이다. 답변도 꽤 부정적이고 꽤나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말은?’ 이라는 질문에 선뜻 답을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 답을 해본다면 난 바로 ‘예지 (그림) 잘그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 칭찬은 누구나 듣기 좋으니까.

학기 초엔 장래희망이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었다. 없었고, 있다고 해도 내 장래희망이 부끄러웠으니까. 지금 나는 장래희망이 생겼고, 목표도 생겼다. 누군가 내게 장

래희망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만화가’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만화가는 옛날부터 하고 싶었지만 확신하진 못했다. 그러나 지금 확신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누선선생님과 드로잉 수업을 했을때 확실히 흥미가 있었고, 돈을 못 벌어도 그림을 내 직업으로 삼아도 좋겠다 생각했다. 빈 도화지에 선만 쓱쓱 그어도 재미있었다. 나는 그때 그림이 좋다고 확신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유성ON마을별 솔가람아트로그인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의 나는 학기 초보다 긍정적으로 변했고 예민했던 그때와 달리 많이 유해진 느낌이다.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첫 중학교 1학기를 특별하고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1부. 내 마음은 몇 도 일까?

첫 만남

(송연우)

중학교에 올라와서 첫 주제 시간이다. 친구들과 열심히 의논해 술가람 아트로그북으로 정하고 티켓팅처럼 알람도 맞춰겨우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술가람 아트로그북인 만큼 더욱 기대되었다.

술가람 아트로그북 시작 종이 올리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시작하자마자 선생님께서 조예은 작가님을 소개 시켜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할일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할일을 책을 만드는거라고 하셨다. 그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계획서도 보여주셨다. 사실 책을 만들어야한다고 하셔서 그냥 글만 쓰는 것인줄 알았다. 근데 계획서를 보니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친구 탐구, 책 선물 등등등 재밌는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책을 만들때는 주구장창 글만 쓰는게 아니구나..!'

그리고 조예은 작가님과 '나'의 이야기를 써보았다. 질문들도 책 관련이 아닌 진짜 '나'를 알아보는 질문들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것, 내가 싫어하는것, 하고 싶은것, 내가 즐거웠던것 등등 이런 질문들이라 '어? 뭔가 좀 색다르다' 싶었다.

이러한 체험을 해보니 책 만드는것이 힘들기만 한것이 아닌 즐겁고 흥미로운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구장창 글만 써야할 것 같고 지켜올 것 같다고 잠깐이라도 생각했던 내가 왜 그랬지? 싶다. 그리고 너무 좋은 작가님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이 지켜우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책에 들어갈 나의 이야기가 점점 기대되고 기다려지게 되었다. 오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평소와 다른 설렘을 느끼게 되었다.





열네 살의 한 장면

(이태경)

중학교에 들어와 막막했던 생활 속 작은 빛이 되어준 활동이었어요. 아무리 학교를 가기 싫었어도, 월요일만큼은 기대가 되는 날이었고, 전날 밤부터 설레한 기억이 가득 남아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항상 소풍을 가는 것 같다”며 말을 한 기억도 나에게 작은 힘이 되어준 기억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친구들과 나’에 대해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알아가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번 활동들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사진 찍기와 원하는 책을 골라 읽어보는 활동이었어요. 사진 찍기 활동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순간을 나중에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남긴다는 것 자체가 멋있었고, 친구들과의 벽이 점차 부서지며

서로가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했던 활동 중 가장 행복했던 활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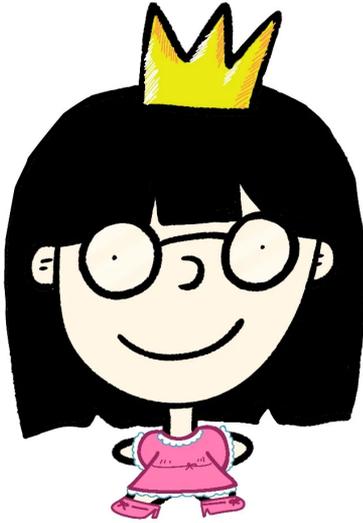
그리고 원하는 책을 골라 읽어보는 활동은 친구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원하는 책을 골라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책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술가람 아트로그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잠깐 스쳤지만 오래 남는 파도 같습니다. 이유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를 솔직하게 배울 수 있었고, 웃음과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물결칠 것 같습니다.



내 별명은 서프!

(이서현)



이름: 서프 (서현 프린세스)

특징: 활발하다, 왕관을 쓰고 안경을 썼다.

‘서프’라는 별명이 생기고 그 별명을 보고 친구가 만들어준 캐릭터이다. 생기게 된 계기는 이렇다. 5학년 여름 교실 안,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불렀다.

(친구1) “공주!”

(나) “응?!”

(친구2) “아, 그럼 서현이니깐 서현 프린세스 어때?”

(친구1) “오, 좋은데?”

이렇게 생기게 된 별명,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금방 사라질 줄 알았다. 설마 이 별명이 졸업식 때 지도 불리고 길에서 만날 때도 이렇게 불릴지 상상도 못 했다. 지금도 나랑 친한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제는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친구가 캐릭터까지 만들어 주었다. 학기 초에 신청한 ‘슬가람아트로그북’ 수업에서 자신에 대해 캐릭터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무슨 캐릭터를 그려야 되지...’ 이 고민을 20분째 하던 그때 내 뇌리를 스치는 한 생각. ‘친구가 그려준 나’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딱히 다른 좋은 생각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골랐다. 모두 다 나를 닮았다고 하는 그 캐릭터.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그 캐릭터, 서프가 좋지는 않다. 그래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나와 닮았다고 하니 서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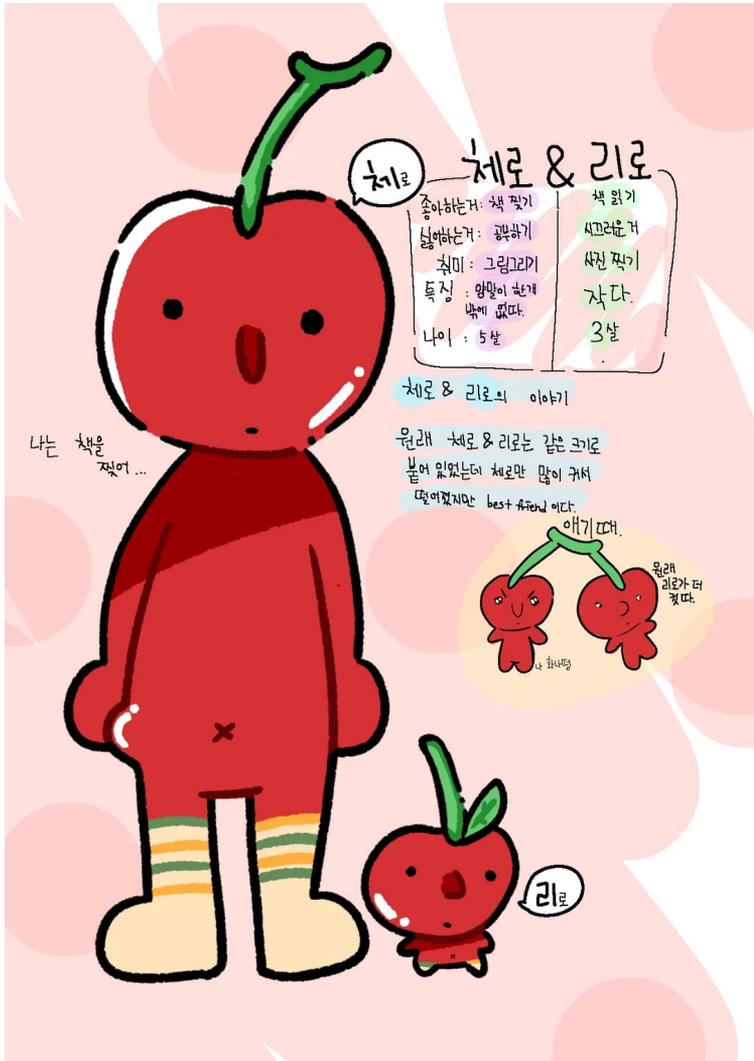


그림 그리면서 드는 생각

(김채하)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생각을 글로 써볼까 한다.

그림을 그리면서 든 생각은 보통 “와, 이번에는 좀 잘 그려졌는데?” 또는 “이번에는 좀 잘 못 그려졌다...” 와 같은 생각을 하고는 한다. 나의 그림은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잘 그려지거나 못 그려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림을 각 잡고 그리면 잘 안 그려지고, 대충 빈칸에 그리면 뭔가 잘 그려져서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많다. 그리고 종이에 그릴 때는 더 잘 그려지지만 채색과 선 따는 것이 귀찮고, 디지털로 그리면 그림은 잘 안 그려지지만 채색과 선 따기 지우기는 디지털이 좀 더 편안해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는 한다.

그림은 “나라가 허락하는 마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중

중 하고는 한다. 왜냐하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기가 싫지만 또 잘 그려지면 계속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그림은 어디서나 그릴 수 있어서 장점이 많은 취미인 것 같다. 그림은 다양한 곳에서 그릴 수 있고 노래나 동영상도 보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이라는 취미에 푹 빠져버린 것 같다. 그림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재미있고 자유롭고 이상한 취미인 것 같다.

내 자캐는 체리를 주제로 한 캐릭터'들'이다. 이름은 체로와 리로이다. 첼로는 키가 120cm이고 리로는 30cm이다. 첼로의 나이는 5살 미로의 나이도 5살로 쌍둥이고 둘 다 성별은 체리이다. 첼로의 특징은 볼록한 귀여운 배가 특 하고 튀어나와 있고, 미로의 특징은 아주아주 작다. 이 캐릭터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자캐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린 캐릭터들 중에 가장 귀엽고 작은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이 캐릭터들을 그릴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머리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들에 머리는 체리 모양이어서 조금만 틀어져도 이상해지기 때문이다. 그림은 다 내가 그리는 것이지만 다 다른 생각이 들어 신기하고, 나의 그림은 맨날 맨날 조금씩 바뀌기에 미래에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시간을 붙잡는 마법, 사진 (정다인)

어떤 사진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어떤 사진은 울
컹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사진이 마음을 흔드는
건 그 안에 우리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수돗가 사진에는 친구들의 손이 모여있고 물방울
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물놀이를 했을 때가 생
생하게 떠올라서 일까? 사진만 봐도 여름이 느껴
지고 그때의 기분까지 떠오른다.

사진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시멘트 구석의 민
들레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아름다움이 보이듯이,
사진을 찍을 때의 감정, 기억 그리고 평소에는 지
나칠 수도 있는 순간들을 다시 보게 해줘서 더욱
소중하다.



민영이랑
은호가 체육
선생님 차 옆에서
포즈를 취하길래
찍었는데 생각
보다 잘나왔다.



○ 카메라 내기 약 30초전 급하게 찍은
마지막 사진, 은호가 귀엽다.



21.05.2

거울이 보며
거울샷 영감을 받아
찍었다.



거울샷



태경이가
찍어준 거

21.05.2



느낌. 사진 찍어볼까
나의 마음을 돌아볼까
이어서 할까.



2025, 5, 26
일요일



만영이가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찍는게
눈에 띄어서
찍어볼



친구들이 나와 연우가
같이 있는 모습
찍어주었다.





나의 최애, 고양이

(김재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고양이는 정말 귀엽다. 동공이 크고 털이 보드라워서 좋아한다. 예전에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강아지를 조금 더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고양이를 더 좋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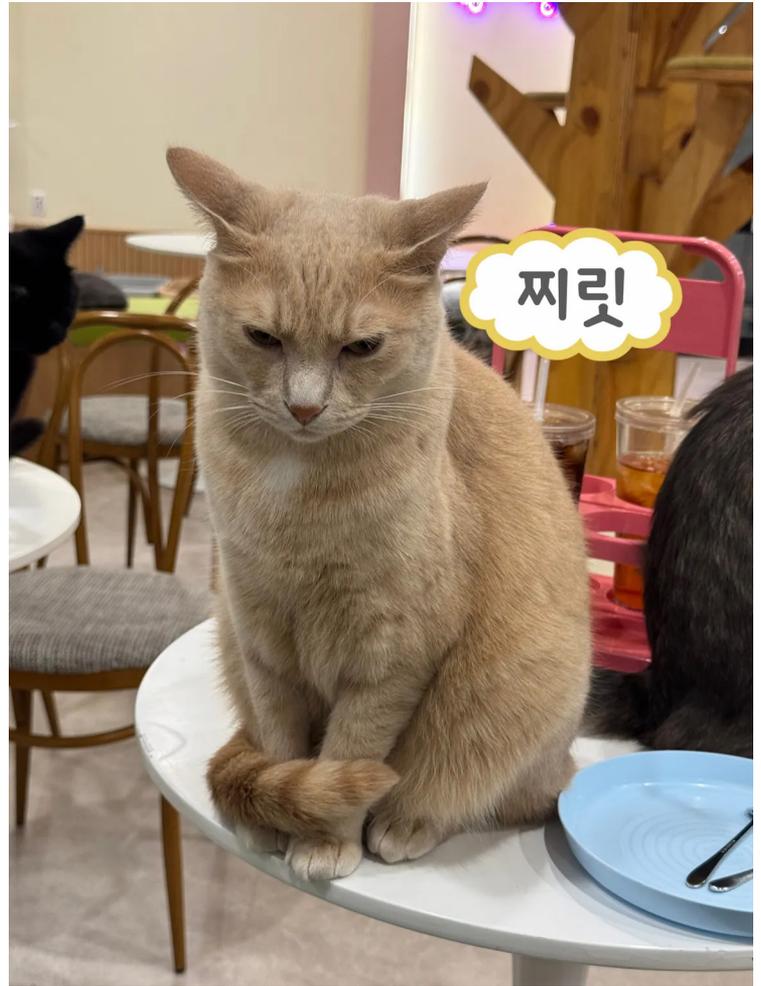
고양이라면 다 좋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은 브리티쉬 숏헤어다. 브리티쉬 숏헤어는 크고 둥근 머리와 볼살, 짧은 코가 특징이다. 성격은 침착하고 여유로운 편이다. 브리티쉬 숏헤어의 여유로운 성격에서 매력이 있다고 느낀 것 같다.

나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셔서 고양이를 기르지 못한다. 그래서 고양이 카페에 자주 간다. 고양이들은 간식을 손에 쥐고 있거나 장난감을 들고 있을 때만 나를 봐준다. 가끔은 고양이들이 간식을 다 먹고 가버리면 쓸쓸하기도 하다.

그래도 몇몇 고양이들은 손에 간식이 없어도 내 무릎에 앉아서 자기도 한다. 고양이가 무릎에 앉을 때면 무릎이 따듯해져서 기분이 좋다.



저는몹시귀여워요





가장 행복했던 2024년

(이태경)

좋은 친구들, 많은 것을 저를 위해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처음 했던 일들, 그리고 추억이 모두 적절한 타이밍에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던 한 해였기에 완벽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원이란 것이 진짜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고,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얻어간 2024년이었어요.

글쓰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글을 잘 쓴다는 것과 내가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저를 보시곤 당시 담임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쓰면 좋아”, “제목은 나중에 지어봐” 등등의 말을 해주셔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책을 내보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사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바로 6-3 친구들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눈싸움을 했던 일이었어요. 6-3과의 일들 중 순수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서로 눈을 옷 속에 넣기도 하고, 눈 위에 그림도 그리며 어린 아이처럼 추운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 이후엔 급식을 먹었어요. 무슨 메뉴가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장 맛있었던 급식이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작년의 겨울과 눈은 분명 추웠고, 차가웠지만 기억 속엔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없던 건 아니니까 그 기억으로 저 또 살아갈 거예요. 그 저 나의 추억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순간들을 추억으로 남기며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전 만족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 수영장

(육민영)

우리 동네에는 하나밖에 없는 구즉국민체육센터. 거기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지만 나는 그중 수영장이 가장 좋다. 25m의 수영장은 깔끔하다. 수영장에 들어서면 물이 시원하게 감싸준다. 수영을 하려고 물에 머리까지 담구면 별거 아닌 소리도 크게 들린다. 예를들어 하수구에서 물 빨아들이는 소리, 바닥에 수경이 떨어지는 소리 등. 수영을 하며 땀을 흘리면 다른 잡 생각도 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수영할 수 있다. 수영을 할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법은 자유형인데 팔을 물에서 쓸어넘겨 앞으로 나갈때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물의 느낌이 좋다. 수영을 하려 물에 부으면 바닥에서 떠 있는 느낌이 나는 느낌이 나는 것도 수영과 수영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유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 : 송강 초등학교

(김민서)

나의 이야기에 씨앗이 될 수 있는 질문에서 우리 동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대전 유성구 송강초이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이기도 하고 즐거운 추억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녔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를 가지 않고 이 학교를 12년 동안 다니고 싶었다. 이제 야 적응하고 편해져 반 애들과 다 같이 어울려 화목했는데 졸업한다고 하니 실감이 안 나고 믿어지지 않았다. 6-3반에서 울고, 웃고, 화내고, 슬퍼하고, 행복하고, 재밌고 온갖 감정들을 다 겪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나누었다.

쉬는 시간에 눈이 왔을 때 운동장으로 뛰쳐나가 걱정 같은 거 없는 순진한 아이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애들과 다 같이 눈싸움도 하고 뛰면서 놀았던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지금 중학교에서 반 애들과 긴 줄넘기 연습을 할 때 작년에



체육대회 하기 전에 반 애들과 반별 줄넘기를 하면서 줄 걸려도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응원했던 게 생각이 났다. 그때 우리 반이 협동심이 강하고 많이 연습해 체육대회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6-3반은 서로 힘이 되었다. 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준 게 6-3반이라서 매우 좋은 것 같고 6학년 때로 돌아가 그때 느낀 감정이랑 기분을 다시 느껴 보고 싶다.



2부. 친구야, 네 마음은 몇 도야?

아오

Amij



평소에 좋아하던 장발남캐를
그림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

초단편 : 긴 머리 이상한 녀석

(안수영)

안녕 친구들.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은 여자야. 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정확히 3개월 지났나?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나랑 같이 다니던 애들은 거의 다 개성 넘치고 이상한 사람 투성이였다. 중학교 3학년이면서 아저씨같이 면도하는 선배라거나, 여자면서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동갑내기라거나, 남자애면서 여자애들이랑만 노는 옆 반 아이 등등. 근데 그런 아이들을 뛰어넘고 당당하게 이상한 녀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 바로 강송 중학교 1-1반의 소문 속 아이, 채우현. 지금 내 앞의 멍뚱멍뚱 앉아 있는 긴 머리 남자아이의 이름이다.

남자이면서 여자인 나처럼 긴 머리를 하고 있다니, 참 이상한 녀석이다. 근데... 왜 자꾸 내 앞에 있는 거지? 옆도 아니고 앞에. 꼭 봐달라는 듯이. -

“야, 왜 자꾸 내 앞에 알짱거려?”

내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시험기간이라 그런 것일까. 아니면 저 아이의 긴 머리가 거슬려서일까. 남자아이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

“안돼?”

나는 기가 찼다. -

“하, 됐다. 내가 너랑 뭘 말을 하겠어?”

남자아이는 가뿐히 내 말을 무시하고는 돌아섰다. 진짜 어이가 없다. 그 뒤부터 남자아이랑 내가 붙어있는 빈도가 줄었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을 터이다. 그런데... 왜 자꾸 눈에 밟히지?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남자아이를 옥상 쪽 계단으로 불러냈다. -

“왜 굳이 반이랑 먼 데로 불러낸 거야? 비효율적이네.”

나는 아이의 말에 찢린듯 마른침을 삼켰다. 나는 그 말을 겨우겨우 모르는 체하고, 하고 싶었던 말을 이었다. -

“너는 왜 남자이면서 여자 같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말하자, 아이의 입도 열렸다. -

“난 남자이기 전에 나 자신이니까.”

살짝 열린 옥상 문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내 여자답고 긴 머리와 남자아이의 여자다운, 아니 남자다운 머리카락이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나부꼈다. 진짜 이상한 녀석이다. -

작가 윤수영의 말 :

우리의 주인공 지아는 남녀편견 집안에서 태어나 그런 사상을 보고 배운 아이입니다. 지아라는 캐릭터는 남녀편견 사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로, 긴 머리를 고집하고, 중학생 때 면도하는 선배라거나,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여자애나, 이성이랑만 노는 친구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아의 사상을 바꾸기위해 디자인 된 캐릭터가 우현입니다. 긴 머리를 가진 남자아이 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 하지않으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반짝일 때

이태경 시

액자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흐릿한 기억들이 모여
조용히 시간을 담아둔다.

그 안에 웃음도, 눈물도
모두 빛바랜 색으로 남아
다시 꺼내지 않아도
우리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액자는 그저 틀일 뿐이지만,
그 틀 안에서 나는
한때 누군가였고
지금도 그 기억으로 살아간다

또 그렇게 액자 속 사진은,
한 세월을 넘긴다.



잊혀진다는 것

잊혀진다는 것은
내 심장에 박힌 기억들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썩어가며,
끝내는 내 안에서 썩은 뼈가 되는 일.

그리움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깊이 베고,
눈물은 말라버린 바다에
홀로 빠져 잠겨 죽는 아이처럼 흐른다.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누군가의 기억 속에선
이미 죽어버렸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속에
버려진 채
텅 빈 공허만이
남아 날 휘감는다.

잊혀진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가장 참혹한 죽음이다.

꽃눈

따스한 봄이 지나고,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스치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추억에 붙들려
꽃눈이 내리던 그 밤에 멈춰 서 있습니다.

멍치지 않는 눈을 보며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그때, 참 어렸지요.

차가운 손을 맞잡고 있었는데,
기억은 왜 이리 따뜻할까요.

꽃눈처럼 차갑고 순수했던 당신이
지금도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혹시 문득 내가 떠오른다면,
그날의 꽃눈처럼 조용히 다가와 주세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 그 계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짝인 바다

그 여름의 우리는
햇살에 반짝였고,
파도에 웃음을 실었지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처럼
짧지만 선명했던 순간들

말하지 않아도 알았던 마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던 날들

우리는 잠깐이었지만
영원보다 뜨거웠어

세상이 멈춘 듯했던 그 오후,
바람도, 파도도,
우리를 기억할 거야

우리가 닮은 계절

봄바람이 뺨을 스치면
가슴 어딘가, 잊고 있던
설렘이 피어난다.

햇살은 어깨에 내려 앉고
벚꽃은 망설임 없이 흩날린다.
마치 우리처럼.

여름이 오면
우린 조금 더 뜨거워지고
조금 더 솔직해진다.

바다로 향하는 기차 안
창밖을 향해 흘러나오는 웃음,
한 곡의 노래처럼 퍼진다.

아직 어리고 서툰 우리는
그래서 더 빛나고
모든 순간이 진심이다.

청춘은 지금,
이 계절을 닮았다.
푸르게 타오르며
언제든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을 푸른 하늘 아래
한 장의 사진처럼 남겨두고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이다.



평범한건 싫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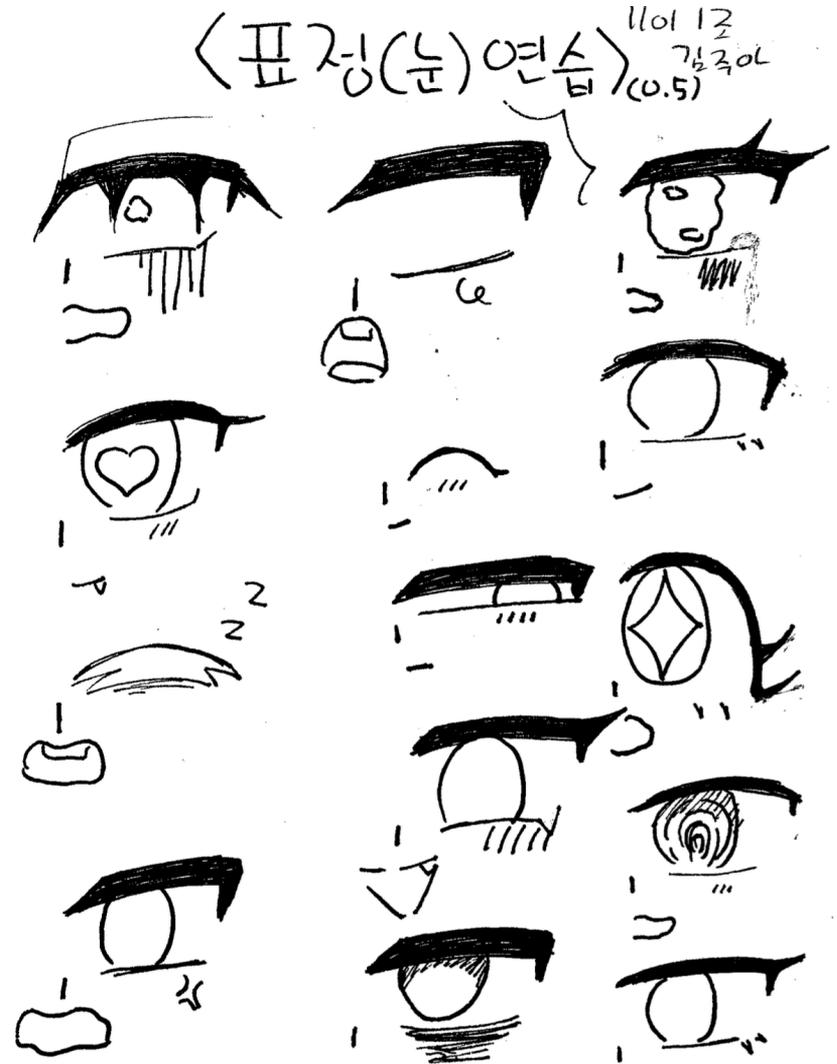
(김주아)

어느날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 오라고 했다. 저번에 아파서 학교를 빠졌었는데, 그때했던 수업이란다. 나는 그림 노트와 도와줄 자료들을 받았다. 자료들을 대충 훑어 보았다.

‘아무래도 이 우유그림이 제일 해볼만하지 않을까?’

풍경화는 대부분 그릴것도 많고 복잡해서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쓰일 것 같았고, 인물화는 평소 실사 사람보다 데포르메가 심한 만화 캐릭터를 많이 그리고 다녔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남은것은 사물을 그리는 것 뿐인데 그나마 쉬운 사물도 보통 곡선이 많아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그런 내눈에 직선이 많고 형태가 단순해 그리기 쉬워보이는 사진이 하나 띄었다. 빈티지한 분위기의 우유였던 것이다. 그렇게 내 노트의 첫번째 그림은 아무래도 켈 만만해 보이는 우유를 따라 그리는 것으로 정하게되었다. 노트와 자료들을 들고 집으로 온 뒤 책상에 앉았다.



다양한 표정을 연습하며 사람의 다양한 감정들과 그 감정에 따른 변화를 많이 알수 있게 되었다.

‘일단은 가볍게 러프부터 그리면 좋겠지.’

건물을 짓든,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뭘 하든지 일단 간단한 설계부터 하고 시작 해야한다. 이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려 전체적인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시작해야 나중에 제대로 할때 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제부터 제대로 그려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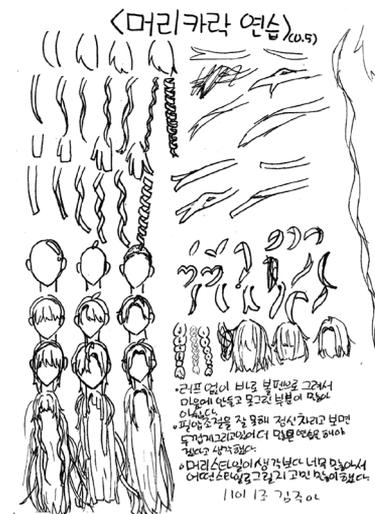
이쯤이면 러프는 완벽하다. 그러니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릴 차례다. 나는 전보다 더 세게 연필을 잡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쯤이면 되겠지.’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아주 혼하디 혼한 우유그림을 완성하였다. 나는 이쯤이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다음날 학교에 도착한뒤 나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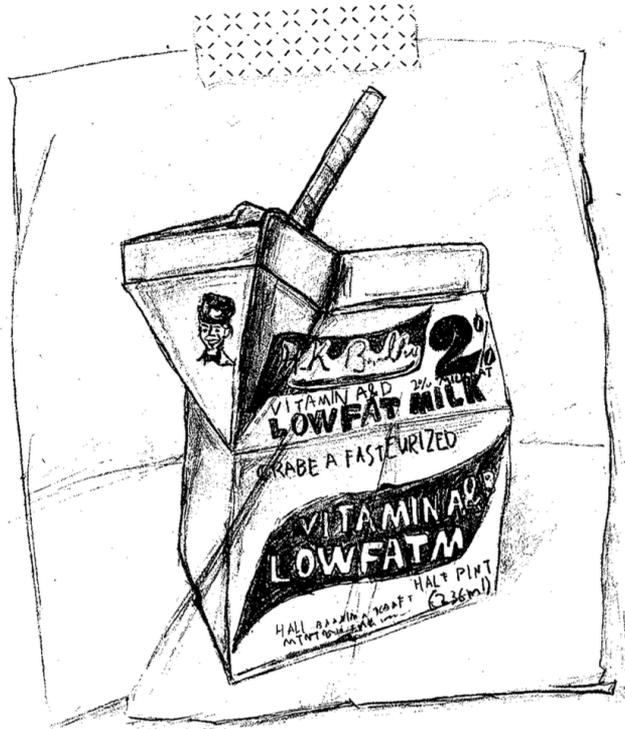
‘뭘지? 애들이 다 저 우유만 그렸잖아?’

친구들이 대부분 다 내가 그린 우유와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나는 어서빨리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가서 그림을 고치고 싶은 심정이였다.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연필을 집었다. 오늘 같은 월요일엔 항상 학교가 끝나면 5시 반까지 영어학원에 가야한다. 보통 월요일엔 4시에서 4시 반사이에 학교가 끝나기에 나에게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있었다.

‘지금 내가 가진 시간이 별로 많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따 학원 끝나면 또 시간이 생기니까, 지금은 시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디테일에 집중하며 그리는게 더 낫겠지.’ 평소 학교가 끝나고 남는 자투리 시간들은 보통 폰이나 보며 텅굴거리는데에 쓰였으나, 오늘은 다르다. 오늘만큼은 특별히 폰을 보고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



스
강
경
경



<작품명: 16p에 있는 우유그린 종이>

- 평범하게 우유그린 종이 그렸다가 그냥 그리면 재미가 없고
향해보여. 여기서 2번 고인. 학교복도에 붙어있는
우유그린오리타되었다.
- 그림 속에 실재 마스크티셔프를 붙임으로 현실감
주기 했다.

오늘날 이걸 1101김국아

했다. 더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더 정성스럽게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참고 사진에 있는 우유를 그대로 복사하듯이 최선을 다해 그려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참고 자료에는 패키지 디자인 디테일을 표현할 때 똑같이 보단 자신의 감정을 담아 그리라고 했으나, 나는 신경쓰지 않았다.

‘내 감성은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니 이정도 문장은 무시해도 괜찮겠지.’

‘...아마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때의 나는 자신만의 감성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저 나는 디테일을 파 압도적인 퀄리티로 다른 그림들 사이 눈에 띄는 것만 집중했을 뿐이었다.

학원을 갔다온 뒤에도 난 ‘자신만의 감성’이란 것은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 지난 포장지에 있는 모든 알파벳 하나하나를 베껴쓰고, 음영과 그림자를 꼼꼼히 관찰하며 그렸으며, 내 그림과 예시사진의 차이점을 눈에 불을 키고 찾아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는 완전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를 완성했다.

무작정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아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눈에 필수 있게 방향을 바꿨다. 드디어 내가 ‘자신만의 감성’
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제 나는 작품에 나만의 분
위기와 스토리를 넣고자 노력했다.

‘책상에 놓여진 우유’를 그린 그림’을 그리는 건 어떨까?
그저 지금 그린 우유 그림을 사각형으로 두르고 약간 종이
처럼 묘사만 했을 뿐인데 다른 그림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
림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럼 지금 이 종이가 우리 학교 벽에 붙어있는 걸로 하면 어
떨까?’

조금만 수정했을 뿐인데 많은 느낌이 바뀐 그림을 보며 감
탄한 나는, 그림에 스토리를 넣기 시작했고,

‘여기에 실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

그림에 색다른 접근을 시도했으며,

‘학교벽에 낙서를 넣어 볼까?’

그림에 분위기를 더하기 시작했다. 내 그림이 더 더 더 눈에
필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 그림에 담긴 분위기를 전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내 그림은 그 어떤 그림보다 특별해
질 수 있게 되었다.

어렵지 않다. 그저 평범함에서 조금만 비틀면 특별해 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저 어렵다고 생각해 어려워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은 별거 안해도 되는 것일진데 말이다.

웹툰작가가 되는 길

(정예린)

저의 꿈은 웹툰 작가입니다. 웹툰 작가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도전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웹툰에 재능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나, 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로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고 나니 꿈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는 직업은 없을지 찾아보다가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웹툰을 좋아하고 자주 보다 보니 더욱더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웹툰 작가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진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되고 싶다는 마



음이 더 컸으니까요,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수많은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웹툰도 보며 참고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웹툰 작가가 된다고 하여도 이야기가 없으면 만들 수 없으니깐 시간도 아끼기 위해 미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작과 결말 내용은 잡했지만 가장 중요한 중간 부분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였음에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도를 하니 중간 부분이 점점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가니 그림 연습에도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아직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간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웹툰 작가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씩은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 점도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웹툰 작가는 저의 습성에 너무 잘 맞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저는 이 꿈을 포기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가지의 로망이었기에 아무리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노력에 노력이 더해질수록 더 빛나는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되지 않아도 전 포기 하지 않고 할 것입니다.

제가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것 입니다. 웹툰 작가가 될 때까지, 포기 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25.5.12
찾아가는 버찌책방에서



우리가 고른 책은요,

여름 :
〈남남〉을 읽고
(전예건)



“채원과 서우의 여름은 견딜 만 했을 것이다.”

책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남남》이라는 생소한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짧은 두께에 고민하지 않고 책을 고를 수 있었다. 책은 짧은 만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책이 80쪽밖에 안 되어 5번이나 읽었다

줄거리는 이렇다. 채원은 회장으로서 매일 잠만 자는 서우를 자주 도와준다.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우를 지켜보게

된다. 자연스레 채원은 관심이 생기고 서우를 좋아하게 된다. 서우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채원은 맛 평가단을 가장하여 엄마에 가게 떡볶이를 준다. 서우가 ‘남남’하고 먹는 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준다. 매일 다양한 음식을 먹다 서우가 직접 사준다고 간 가게는 하필 채원의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였다. 채원의 거짓말에 화가 난 서우는 4일 동안이나 채원과 만나던 곳에 나오지 않는다. 기다리다 지친 채원은 잠시 잠에 들고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잠이 깬다. 서우가 부채로 바람을 불어주고 있었다. 채원이 왜 그동안 거짓말을 했는지 고백하며 책이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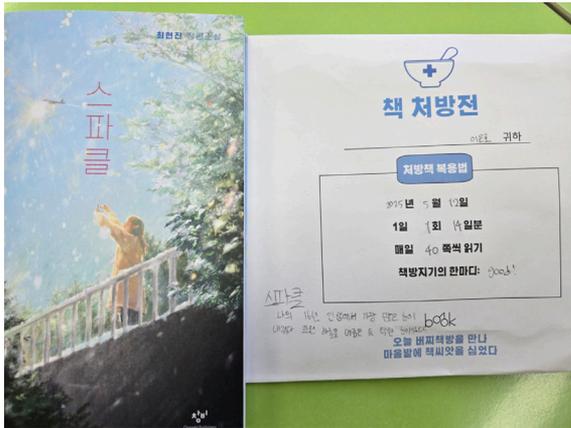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채원과 서우의 여름은 견딜 만 했을 것이다.” 작가의 말에 있는 이 문장 하나가 글의 내용을 꿰뚫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서우가 부채로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장면과 참 잘 어울린다. 더운 여름을 서로가 식혀주는 모습, 등장인물들이 여름이라는 배경에 참 잘 어울린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편의점이다. 책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이자 채원과 서우가 만나는 장소이다. 등장인물들과 가장 많이 얽혀 있으면서도 나에게 친숙한 장소기에 가장 마음에 들었다. 여름이 되었다. 책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여름을 보내고 싶다.

추억의 대한 느낌 :

<스파클>을 읽고

(이은호)



자동차 책방에서 <스파클>이라는 책을 골랐다. 아직 중간도 읽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도 나오지 않았겠지만, 맨 처음 “나의 16년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흐린 눈이 하늘을 머금은 듯 탁한 눈이었다.” 라는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다. 흐린 하늘을 머금은 듯한 눈. 본 적 있는 거 같으면서도 상상이 안가는 눈. 눈은 항상 하얗지만 유리(주인공) 눈에는 그

눈이 탁해보였다는 그 이유도 알고 싶고 주인공이 눈에 계속 보이는 눈송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눈송이 별명은 바보이다. 시간이 흘러도 8살에 멈춰있는 주인공 동생처럼.

그리고 우리는 옛날 크리스마스 때 화재 사고를 겪어 우리가 눈에 들어가 오른쪽 각막 이식을 받았다 그 이식을 해준 사람의 이름은 이영준이다. 우리는 갑자기 이영준의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영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다.

저 위에 문장들 하나하나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사람 마다 생각이 다른 것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 같다.

현실인 듯 현실 아닌 이야기 :

〈네가 되어줄게〉를 읽고

(육민영)

네가 되어 줄게
1993 → 2023



솔가람아트로그북이라는 주제에서 버찌 책방에 있는 책들을 읽어보는 시간이었다. 그때 나는 다양한 책들의 줄거리도 살펴보고, 표지도 여러개씩 보고있는데 [네가되어줄게] 라는 책이 내 눈에 유난히 띄었다. 뒤에 써있는 줄거리를 봤을

땀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표지가 너무 맘에 들어서 책을 집어 읽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기니 사춘기인 딸 그리고 딸의 엄마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시간은 줄 모르고 매일 읽다보니 읽은 양이 점점 들어갔다.

“아무리 엄마와 딸이라도 매일 매 순간 좋을수도 없지 않을까. 나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한다고 믿게 됐다. 그거면 됐지.”

이 책에서 내가 느낀 가장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담겨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장은 좋아하고 믿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나에게도 엄마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와 엄마도 저런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010년생, 14살, 중학교 1학년의 이미지인 강윤슬에서 1980년생, 14살, 중학교 1학년의 이미지인 최수일로 바뀐 강윤슬. 이 주제가 내 맘에 들어 재밌었다. 그리고 뒤편에 써져있는 문장인

“내 귀여움이 엄마의 인생을 구원했구나”

“너를 귀엽게 키운 이 엄마 덕분에이지.” 라는 문장도 매력적이다.

환타지 소설의 묘미 :
<현실 온라인 게임>을 읽고
(윤예성)

처음으로 조예은 작가님의 이동식 책방에서 김동식 작가님의 <현실 온라인 게임>이라는 책이 표지부터 제목까지 마음에 들어서 고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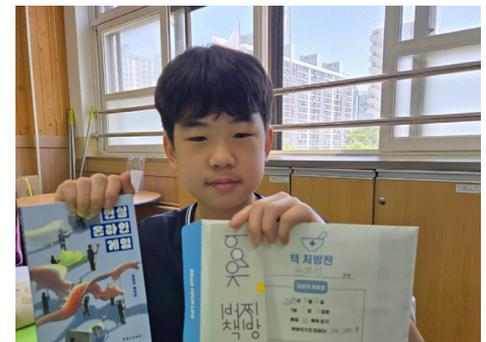
이 책에 초반 부분에 주인공 '김남우'가 전에 온라인 게임을 중독적으로 한다. 게임을 하면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될 수 있으니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침대에 누어서 잠들 때면 현실이 온라인 게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김남우에 모습이 나와 비슷하고 느꼈다. 나도 게임을 좋아해서 즐겨하면서 현실이 게임으로 바뀐다면이라는 상상과 생각을 하기에 페이지를 넘기며 '김남우에게 어떤 일과 어떤 경험과 아니면 진짜로 게임이 현실로 적용이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전류가 흐르듯이 지나갔다.

그렇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김남우에게 처음으로 한 여자를 짝사랑 하게 되는데, '그 여자와 함께한다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같은 회사를 다니던 그 여자의 이름은 홍혜화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김남우는 혜화에게 고백을 하고, 혜화는 남우의 고백을 받아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지만, 혜화는 남우에 데이트 신청과 여러 가지를 거절했고, 그 이유는 "제가 캐릭터를 키워야 하거든요."였다. 혜화의 말에 남우는 자기 자신도 게임을 좋아한다며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남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혜화와 사이는 어떻게 흘러 갈지 궁금하다.

책 속에서 게임이 생겨나는 느낌과 게임의 중독성 등등 이러한 느낌을 살려낸 김동식 작가님이 대단하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본받아서 판타지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아무튼 문구〉를 읽고

(이정혁)

나는 문구류 들을 좋아해서 샤프나 지우개등 여러 문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랐다. 이 책은 적당한 크기와 적은 분량으로 더 눈에 띄었다. 맨날 들고 다니며 읽으니 한 세 번 정도 읽은 것 같다. 나와 같은 문구를 사랑하는 작가님으로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아무튼, 문구는 문구류에 대한 애정을 담아 다양한 문구 용품들을 소개하고, 그 문구 용품들이 작가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에세이 이다. 작가는 문구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과 의미를 곱씹으며, 독자들에게 문구의 매력을 전달한다. 특히 작가가 직접 경험한 문구류 사용 후기와 함께 문구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내어 문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감성을 전달한다.

책을 읽어 보니 김규림 작가 님의 문구사랑이 남다르지 않다는걸 알았다. 남다르지 않으시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일요일 저녁에 일정이 없으면 무조건 문방구에 들른다는 부분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문구들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문구 하나하나가 주는 작은 행복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이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튼 문구》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소소한 것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인상깊은 구절은 “나는 작은 문구들의 힘을 믿는다.”

였다. 이유는 작은 소모품에도 힘이 있다 하니 정말 문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에 감명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된다 :

송강아트로그북(찍GO그리GO쓰GO)을 마치며

(담당 교사. 전미영)



그런 순간이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요즘, 1학년 주제선택 송강아트로그북 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개처럼 만족감이 피어오른다. 한 학기 동안 글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표현한 것들을 다듬는데 몰두하는 학생들의 에너지가 좋다. 글에 맞는 그림을 그리느라 폭 숙인 머리 위로 보이는 정수리가, 집중해서 사진을 보정하느라 자기도 모르게 쪽 나온 입술이 귀엽다. 조예은 작가님의 피드백을 받고 고친 글이 스스로 장해서 한껏 커진 목소리가 듣기 좋다.

지난 겨울, 우연히 본 유성구청의 공문 한 장, 호기심을 따라 찾아간 협의회실이 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었다. ‘2025학년도 마을교육과정 유성On마을별 사업설명회’ 단출하고 편안한 자리, 2024년 대전 장대중학교와 성덕중학교의 활동 영상이 끝나자마자 2025년 유성On마을별에 올라타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유성구 교육과학과에서 그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첫 회의 때, 마을 활동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수현 주무관님은 어떤 수업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주변 신도시와 큰 학교에 끼인 대전송강중학교의 특별한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문화를 접하고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매일 보는 등하굣길, 학교 안, 학교 안에서의 친구들과의 시간 등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즐겼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학사님은 물론, 유성구 교육과학과 측도 가능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3월, 개학하자마자 16명의 학생들과 송강아트로그북에 로그인을 했다. ‘1석이조, 개굴2조, 3겹살조, 4인분 타조’의 모듬 이름을 짓고, ‘나와 너,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필두로 ‘친구 그림 지도’, ‘아날로그 드로잉’, ‘디지털카메라 찍기’,

‘학교 탐방’, ‘퍼스널브랜딩’, ‘자동차 이동식 버찌책방’, ‘아 로마테라피’, ‘디지털 드로잉’, ‘초고작성하기’ 등 우리는 유성On마을별을 타고 신나게 달려왔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탐험했고 찾아냈다. 그러다 껍치는 취향을 만나고 마음을 열면서 서서히 ‘우리’가 되었다. 퍼스널브랜딩 강사님 말처럼 학생들은 서로에게 자기도 몰랐던 강점을 들키며 자신만의 작은 우주를 만들어 갔다. 맥락을 고려한 사진찍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질문들에 대답하며, 자신의 감정에 맞는 향기와 취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활동을 통해 이야깃거리를 쌓아갔다. 편하게 그려도 된다는 드로잉 작가님의 말과 시범에 ‘나는 해방됐어요!’를 외치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으로 캐릭터에 선명한 색을 입히며 즐기던 아이들. 서로의 모델이 되어주고, 상황에 맞는 연출을 통해 의도한 사진을 찍어내는 아이들.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이동식 책방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긴 고민 끝에 한 권의 책을 골라내고 아무렇게나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손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이들.

‘배우면서 크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온몸으로 보여준 학생

들 덕분에, 가르치는 일에서 자유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마음껏 쓰고, 그리고, 사진을 붙인 그 드로잉북이 너희의 행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 앞으로 봄이 오면, 송강근린 공원에서 신나게 사진을 찍고 물놀이를 했던 그 맑은 날이 더불어 생각나길 바라. 그 언젠가 중학생 시절이 자꾸 떠오를 때, 우리가 함께 찍고, 그리고 쓰던 이 시간이 그리움을 채우길 바라. 가끔 삶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 세상이 차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함께한 열네 살 네 살의 순수한 호기심과 서로를 보듬던 다정함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

학생들이 찍고, 그리고, 쓰게 도와주신 조예은 작가님, 권성대 대표님, 윤선우 작가님, 정다운 대표님, 전민제 실장님, 이연주 대표님, 양승희 작가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발로 뛰어주시고 두 손 벌려 맞아주시신 유성구 교육과학과와 조수현 주무관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5학년도, 송강아트로그북 아이들아! 앞으로도 쪽, 너희의 삶을 ‘찍고, 그리고, 쓰면서~~GO!’

〈열네 살의 온도〉 활동에 참여해주신 우리 마을 유성의 전문가들



(좌.상) 유성구 교육과학과 조수현 주무관
(좌.하) 뽕뽕 권성대 이사
(우.상) 버찌책방 조예은 대표
(우.하) 제이픽처스 정다운 대표



(좌.상) 스튜디오 슬로먼트 전민제 실장
 (좌.하) 요계벳 스튜디오 이연주 대표
 (우.상) 일러스트레이터 윤선우 작가
 (우.하) 양승희 그림책 작가

2025 유성On마을별
대전 송강중학교 아트로그북

열네 살의 온도



발행일 2025년 7월 14일
발행처 유성구청 교육과학과



본 출판물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복이음교육지구와
유성구 내래이음교육지구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